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9. 14.(화) 16:00	배 포일시	2021. 9. 14.(화) 15:00
담당과장	기재부 개발전략과장 신준호 (044-215-8770)	담당자	김영수 사무관 (onnandon@korea.kr)

제2차 한-필리핀 공적개발원조(ODA) 통합 정책협의 결과

- 한-필리핀 간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 한도 30억불로 증액 추진
- 그린·디지털 뉴딜·대규모 기반시설 중기 후보사업 8건 발굴
- 코로나19 긴급재난대응 차관 2억 불 등 연내 추가 지원

□ 한국-필리핀 양국 정부는 '21.9.14(화) 「제2차 한-필리핀 ODA 통합 정책협의*」를 화상으로 개최하여,

* 동남아 ODA 중점협력국들(필리핀, 베트남, 미얀마, 인도네시아, 캄보디아, 라오스)과의 경제 협력 및 유상 및 무상원조 연계 강화를 위한 협의체

- 양국 간의 중장기 ODA 정책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, 중기 후보사업 발굴, 코로나19 대응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.

< 양국 대표단 >

* (한국) 기재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(수석대표), 외교부, 국조실, 주필리핀대사관, 수출입은행, KOICA, 수자원공사, 한국농어촌공사, KDI, 농촌경제연구원, 정보통신산업진흥원, 국가철도공단 등 ODA 사업 관계기관 등

(필리핀) 국가경제개발청 조나단 우이 차관(수석대표), 재무부 마리아 탄 차관보, 공공사업도로부 마리아 카브랄 차관, 교통부 루벤 레이노소 차관, 농업부 로돌포 비셀라 차관, 보건부 마리오 빌라베르데 차관, 정보통신부 에마누엘 케인틱 차관, 관개청 리카도 비사야 차관 등

□ 기획재정부 이종화 개발금융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
- 필리핀에 대한 ODA는 양국의 굳건한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'87년 이래 지속 확대되어 누적 8.1억불('20년 말 지출액 기준)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며,
- 한국 정부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개발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필리핀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·무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< EDCF 기본약정 증액 갱신 추진 >

□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* 기본약정**에 따른 차관 지원한도액을 향후 5년 간('22~'26년) 미화 30억 불로 증액 갱신 추진하기로 하였다.

* 대외경제협력기금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): 개도국의 경제·사회 인프라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한 장기저리의 차관 지원 기금

** EDCF 지원 약정기간 및 한도액을 사전에 설정, 기간·한도 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약정 체결 없이 신속 지원 가능토록 합의한 조약

- 기존 EDCF 기본약정('17~'22, 10억 불) 한도가 연내 조기 소진 예상되어 필리핀 정부가 지원 한도 증액을 요청하였고,
- 기획재정부는 필리핀이 ①신남방 중점협력국가로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점, ②양국 간 그린·디지털, 보건·의료 등의 EDCF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점, ③공공인프라 개발협력 수요*, ④코로나19 대응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종전의 3배 수준으로 증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* 필리핀 정부는 국정과제인 'Build, Build, Build' 정책을 추진하면서, PGN 해상 교량 사업(36억불), 민다나오 철도사업(16억불)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중

-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.

〈 중기 지원후보사업 발굴 〉

□ 양국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및 디지털·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괄하는 8건의 EDCF 중기(‘22-’26년) 지원대상 후보사업을 발굴하였다.

- 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, ‘PGN 해상교량 건설사업’은
‘25년부터 6년간 총사업비 36억불을 투자하여
3개 섬* 간 총연장 32km 해상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으로,

* 필리핀 중부 지역의 파나이섬-기마라스섬-네그로스섬(Panay-Gulmaras-Negros)

- 교통·물류 및 해상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기업의 해외 인프라 사업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② 디지털 뉴딜 분야의 ‘국가브로드밴드 통신망 구축사업’은
‘23년부터 5년간 총사업비 1.4억 불을 투자하여,
필리핀의 루손섬 저개발지역 학교·병원·공공기관에
브로드밴드(Broadband) 서비스 연결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,

- 국내의 우수한 ICT 기업이 참여하여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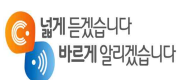
- ③ 그린 뉴딜 분야의 ‘팜팡가 기후변화 대응 2차 사업’은
‘23년부터 3년간 3억불 규모의 투자를 통해 루손섬 서부
팜팡가 지역에 하천 준설, 제방 축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,

- 필리핀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, 해양재난 위험에 노출된 신남방정책 국가로의 국내 그린뉴딜 기업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이다.

□ 향후 양국 정부는 30억 불의 EDCF 기본약정 한도 내에서 개별 사업의 EDCF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국내 유망 디지털·그린·인프라 분야 기술기업 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.

< 코로나19 대응 지원 >

- 우리 정부는 필리핀 현지의 긴급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건·의료 수요에 대응하여 유·무상 지원을 보장하기로 하였다.
- 지난해 EDCF 재원을 활용한 1억불의 코로나19 긴급대응 차관을 승인한 데에 이어, 금년 내 2억불 규모의 긴급 재난대응 차관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.
- 동 차관은 필리핀 내 보건·의료 인프라 확충, 국가적인 긴급재난 대응 역량 제고 등의 용도에 활용될 예정이다.
- 아울러, 지난해 인도적 지원으로 필리핀에 1백만 불 규모의 코로나 진단키트, 마스크 등을 지원하고,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 (COVID-19 Comprehensive Assistance Program)을 통해 의료기자재, 위생키트 등에 1백만 불을 지원한 데 이어,
- 올해에는 2.5백만 불 규모의 백신 수송 냉장차, 진단시설 구축 및 의료진 역량 강화 등을 확대 지원한다.
- 우리 정부는 이번 필리핀과의 정책협약에 이어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 신남방정책국과의 정책협의를 연내 추진하여,
* (정책협의 잠정일정): (인도네시아) 10월 (베트남) 11월
-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국내 그린·디지털 뉴딜 기업의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